

	보 도 자 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미래창조 금융• 따뜻한 금융• 튼튼한 금융
	배포 시부터 보도가능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		
책 임 자	탁윤성 과장(2156-9780)	담 당 자	현지은 사무관(2156-9783)
배 포 일	2014. 6. 9.(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2매

제 목 : 신제윤 금융위원장, 인도 중앙은행 H.R. Khan 부총재와 양해각서(MOU)체결 및 면담

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.9일(월) 인도 중앙은행의 H.R. Khan 부총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은행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는 등 금융협력을 강화

- 금번 초청은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 합의에 따른 것으로,
- 인도 금융당국과는 최초의 양해각서 체결이자 고위급 면담

☐ 금융위원회*는 인도 중앙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에 상호 진출한 8개 은행, 10개 점포**의 효과적 감독을 위한 감독 정보 공유 및 검사·감독시 협력 기반을 마련

* 금융감독원은 동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

** 인도 진출 국내은행 6개(8개 점포), 국내 진출 인도은행 2개(2개 점포)

- 금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급성장중인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

☐ MOU체결에 이은 면담 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인도내 지점 신설에 대한 인가*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

* 외환은행 첸나이 지점('10.11월 신청), 신한은행 푸네 지점('12.7월 신청), 기업은행 뉴델리 지점('13.4월 신청) 신설 인가

○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할 것을 주문하였음

○ 이에 Khan부총재는 한국 은행들의 지점 인가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음

□ 금융위원회는 계속하여 정상회담과 연계한 인허가문제 의제화, 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

○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계획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